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희망제작소의 지역창조 사업 :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적용 사례

작성

뿌리센터

홍선 센터장 | theresa@makehope.org

이창한 연구위원 | happyhanmin@makehope.org

김보영 선임연구원 | boykim@makehope.org

김지현 연구원 | kimjihun@makehope.org

장우연 연구원 | wy_chang@makehope.org

송지영 연구원 | jiyoung@makehope.org

목차

개요	· 2
1. 완주군 소개	· 2
2. 커뮤니티비즈니스 소개	· 2
3. 희망제작소와 완주군 이야기	· 3
〈1〉 시작 : 지역자원 조사	· 3
〈2〉 기초 다지기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 4
〈3〉 지속가능성 확보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	· 5
〈4〉 모델사업 : 완주군 비비정 마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 7
4. 한국사회의 변화	· 9
〈1〉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9
〈2〉 중간지원기관의 확대	· 9
5. 시사점	· 11
〈1〉 성공적인 지원 시스템	· 11
〈2〉 사람 키우기	· 12
〈3〉 패러다임 변화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속가능성	· 13
6. 결론	· 14
참고문헌	· 15

개요

우리나라의 인재와 자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5년간 진행된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의 도전이다.

한국의 농촌 지역은 산업화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과소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별한 전략 산업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농업생산 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역발전방안을 찾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다. 이는 내생적 발전전략 수립의 시도였으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창조사업이었다. 아래 내용은 지난 5년간 희망제작소가 완주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1. 완주군 소개

완주군은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완주군의 북동쪽은 대둔산이, 남서부에는 모악산이 있고 만경강이 지나는 너른 평야 지대에 고산천 등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다.

면적은 820.98km², 2012년 기준으로 인구 85,949명이며,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5,005억 원이다.

2. 커뮤니티비즈니스 소개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용어는 1970년대 중반 설립된 영국 스코틀랜드의 'Community Business Scotland(CBS)' 라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인 유한회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Hayton, 1984)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후, 지역 쇠퇴현상이 일어나자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달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려는 것이다.(호소우치 노부타카 편저, 2007)

희망제작소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만들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정의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외부의 자원이 아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환경 등 지역주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계승하면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비즈니스를 도입하였기에 일부 수익이 생기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적정규모, 적정이익’을 유지한다. 사업규모 또한 일상적으로 만나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정도의 지역으로 한정하여 과도한 확장을 지양한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지역 문제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역의 과제 해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유희자원의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 순환 등이다. 영리 목적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사업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보다는 삶의 보람이나 지역공헌 등에 뜻을 둔 지역 주민들, 귀농, 귀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3. 희망제작소와 완주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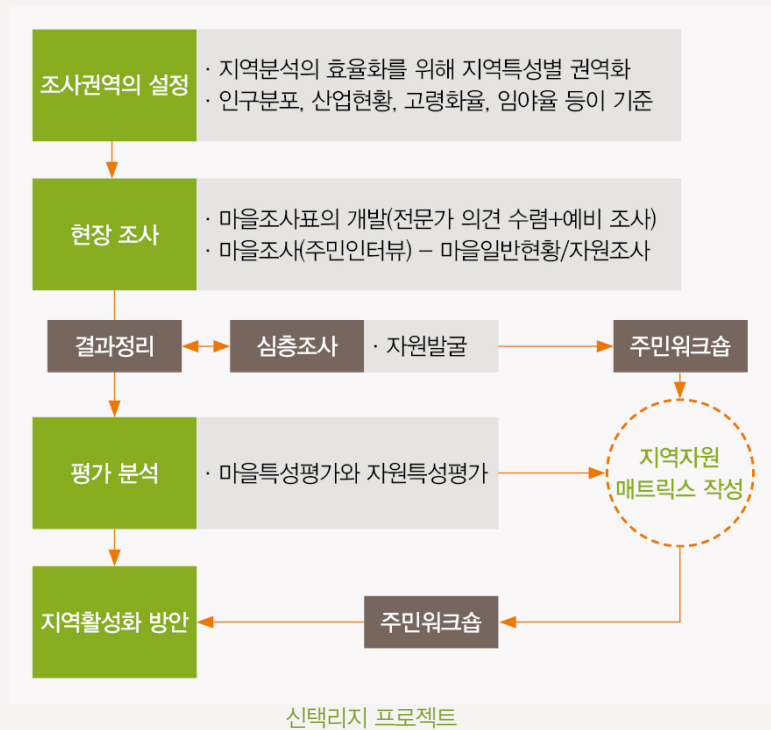
〈1〉 시작 : 지역자원 조사

2007년 일본연수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학습한 것을 계기로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첫 사업은 완주군의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선택리지 사업’이었다(2008년 7월~2009년 6월). 완주군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이 가진 자원(사람자원, 자연자원, 사회자원, 경제자원 등)을 약 1년간 상세하게 조사하였으며, 여기서 조사된 자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안을 제시하였다.

선택리지 사업은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알리고, 행정 쪽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가능성에 공감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아래 그림은 선택리지 사업의 진행 절차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2〉 기초 다지기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선택리지 사업의 성과로 완주군에는 막대한 지역자원 DB가 구축됐지만, 이것만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성화 되진 않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요소였다.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주민들을 교육하고, 참여주체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의 농협 이사장이나 마을리더들이 뜻을 함께 하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지역 리더들은 현재도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로 활동 중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0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준비단이 발족했고, 마침내 2010년 6월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희망제작소가 운영지원을 하고, 지역 리더들의 자본출자금을 바탕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완주군과 운영협력을 하면서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완주군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거리가 멀고 농업활동이 활발한 고산면에 위치해 있다. 고산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과 교육 공간은 물론 전시 공간, 커뮤니티 카페 등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과정

- 2007년 하반기 희망제작소 주관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 단체장 연수 진행
- 2008년 3월 희망제작소-완주군 MOU 체결
- 2008년 7월 선택리지 사업 시작(추진_희망제작소)
- 2008년 8월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설립
- 2009년 6월 선택리지 사업 완료
- 2009년 9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 완료(추진_희망제작소)
- 2009년 10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준비단 시작
- 2010년 5~6월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3〉지속가능성 확보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초기에는 희망제작소 연구원 파견 형식을 취하다가, 현재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운영을 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완주군 및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4회 공동추진, 공동 연구사업 및 실행사업 진행 등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으고, 새로운 주체를 활동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경진대회,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 마을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만들어 농촌의 활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인재육성, 재정 및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굴,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사연구,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등의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재육성 분야는 단계별/대상별/형태별/내용별/분야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기존 학습 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크 과정을 운영하며,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보급/계발/전문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굴은 재정지원(자금, 펀드, 융자 등), 경영지원(상담, 컨설팅, 회계, 평가), 네트워크 지원(매칭, 업무제휴, 활동평가, 교류회)을 하고 있는데, 센터의 가장 주요한 사업 분야에 해당된다.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모집하고, 이후 예비 공동체회사를 거쳐 공동 체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사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자원 발굴과 사업화,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구축 과 사례연구,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야는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장소 및 비품대여, 사무실 회의실 정보송수신 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www.wanjucb.org)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리더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은 초 기 자본 출자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 17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이 농협 조합 장이며, 6명이 농촌과 지역사회 활동가이며,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재정운영은 현재는 사 무국 운영비와 지역 사업비를 완주군 행정의 지원에 기초하고 있으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의 경제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활동 목표 및 내용

〈4〉 모델사업 : 완주군 비비정 마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희망제작소가 하고 있는 완주의 주요한 지역창조 사업 가운데 하나가 비비정 마을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이다. 희망제작소는 완주 신타리지 사업에서 발굴한 모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4년째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공간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고, 그러한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했으며, 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했다. 이러한 모든 제약조건을 지켜가면서 희망제작소와 완주군,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4년간 사업을 진행시켰다.

처음 3년은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직접 마을에 파견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면서, 교육도 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마을사업을 구상하였다. 초기에는 추진 주체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반목하기도 했으며 이것을 조정하는 일이 파견 연구원의 주요업무가 되어 갔다. 아직도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주민들의 소통 역량이 높아졌고, 점차 생각의 차이와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마을주민이 여러 선진 사례지를 둘러보고 학습하면서 기초역량을 키워나간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주민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동안 농림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신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일에 착수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위한 조감도를 그리면서 계획을 진행시켰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물도 문제없이 세워야 했지만, 건물완공과 함께 신문화공간에서 해야 할 주민사업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했다.

주민들은 농가레스토랑과 커뮤니티 카페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문화거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을 했다. 음식 만들기과 술 만들기 교육을 받았으며,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텃밭을 만들고, 공동경작도 시작했다.

이런 활동의 힘을 모아 2012년 1월 주민 스스로 사단법인 비비정을 발족했다. 이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법적인 틀을 만들었고, 2012년 12월 14일에는 드디어 신문화공간이 완공되어 오픈식을 거행했다.

비비정 마을 신문화공간 완공과 함께 주민들은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한대로 농가레스토랑을 시작했다. 농가레스토랑이 문을 열자 비비정 마을에는 완주군수, 전 대통령 부인 등 여러 사회인사와 지역주민, 다른 도시의 교육생 등 여러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비정 마을의 예술교육 및 활동



비비정 신문화공간 오픈식 : 농가레스토랑과 커뮤니티 카페 오픈

4. 한국사회의 변화

〈1〉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희망제작소와 같은 시민사회 연구소와 완주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변화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지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업명은 처음 도입 논의가 있었을 때는 ‘커뮤니티비즈니스’로 사용하다, 2011년 부터는 ‘마을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마을기업의 유형은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형, 생활지원·복지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자원 활용형은 지역특산품과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며,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형은 자원재활용과 연계된 친환경사업이나 자전거 활용과 같은 친환경 교통과 연계된 마을사업이다. 생활지원·복지형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인 지침과 사업예산만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 지정과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2013년까지 1,0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1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 적절한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커뮤니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의 전후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이 최우선이며 이후에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사업이라도 먼저 커뮤니티를 키우면서 주민 교육을 병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행해나가는 것이 사업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할 것이다.

〈2〉 중간지원기관의 확대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사람, 물건, 정보, 사업, 자금, 단체)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특정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주민주도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Hub)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공익활동을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활동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 플랫폼을 개발,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잠재자원 발굴 및 자료화, 사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공익활동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중간지원기관 운영의 주요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역할도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 지원과 더불어 협동조합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구분	민간주도 모델	관주도 모델	혼합 모델
지위	민설민영	관설관영/관설민영	민관협동
설립 시 재원	민간기금	정부기금	민관 공동출자
거버넌스	민간주도	직영 또는 위탁	공동운영
운영재원	자체사업총당	정부기금	자체사업+정부기금
운영장점	독립적, 자주적, 창의적, 탄력적 운영가능	재정적으로 안정운영 지역사회에서 대표성, 권위확보 용이함	민간주도와 관주도모델의 장점 만을 취합하여 운영 가능함
운영단점	재정자립도 미비 지역사회 대표성 및 위상 확보에 제약 지속가능성 약함	관주도 운영에 따른 경직성 정치환경 변수에 민감 위탁 운영시 설립주체와 운영 주체 분리로 갈등요인, 서열 구조 발생	선도모델로서 시행착오 발생 우려 있음. 수평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 하는 것이 관건

중간지원기관의 유형 (희망제작소, 2011)

일반적인 중간지원기관의 주요 역할

- 주체 양성 : 보통 교육사업 해당. (예 : 다양한 주제의 주민교육, 참여역량강화 교육, 지역리더양성 교육 등)
- 사업 추진 : 지역단체 지원사업 해당. 중간지원기관은 직접적 사업추진 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예 : 마을만들기 추진조직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지역경제 추진조직 지원 등)
-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
- 장소 및 정보의 플랫폼 : 장소 대여, 정보 제공 플랫폼 역할을 함.
-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유치 및 사업 진행
- 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 : 연구를 통한 제대로 된 모델 만들기를 지원.
- 교류 및 협력 사업 : 지역의 단체 간 교류나 협력, 중간지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함.

5. 시사점 : 지역의 힘을 키우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착을 위하여 해야 할 일

〈1〉 성공적인 지원 시스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일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특성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회문제가 많은 지역과 아닌 지역, 젊은 층이 많은 지역과 노인층이 많은 지역, 지역의 자원과 지역사회문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각기 다르다.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마을주민, 지역리더,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예술가, 지역단체, 주민조직, 지역기업 등이 주요 주체이자 파트너이다. 사람을 교육하고, 지역에 기반한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대를 통해 변화의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

행정의 지원도 중요하다. 중간지원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아니면 행정에 지원부서를 만들거나 지역단체네트워크를 지원기관으로 세울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지원시스템의 형식보다 지원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논의하고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 지원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제3섹터(시민단체, 주민조직)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여러 나라(영국/일본/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주민조직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고려할 때 공공 공간 활용의 명분이 충분하다.

② 철학 있는 지원기관 마련 필요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지원기관 설립이 좋은 방안이나, 이때 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운영 철학이다. 조직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었다든지 경직되어 있을 경우, 관공서 조직처럼 운영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 설립 때 기존 단체와 협력 중요

지원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여 기존 시민단체, 주민조직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단체와 협력하면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활동을 묶어낼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④ 기금 조성 필요

경제적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간지원기관을 행정기관이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의 후원이나 지원, 주민들의 출자와 같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람 키우기

자생적 주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같은 지역사업을 성공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이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계획을 주민에게 이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 스스로 깨우칠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
- 학습이 중요하다. 이때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견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주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 스스로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주민이 필요를 느낄 때,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찾아보고,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해야 한다. 남이 말하는 계획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더 큰 추진 에너지를 가진다.
- 중요한 것은 선부른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 사업은 필연적으로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너무 빠르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지역리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모델은 모두 리더의 카리스마와 희생정신 가운데 있었다.

지역주민을 만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조한다.

① 교육

활동주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방식은 강의와 워크숍 그리고 사례 탐방이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사례 탐방이다. 현장을 탐방하여 직접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심어준다.

② 지역자원 찾기

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성(자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우리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시작된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자원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작은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실행

작은 마을만들기부터 실천해 본다. 조그만 ‘실행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한 이해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 이런 작은 사업 실행의 경험을 쌓는 것이 커뮤니티에는 매우 중요하다

다. 처음부터 마을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작은 마을 일을 함께 진행해 보면서 커뮤니티를 키우도록 한다.

④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공급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실천

마을만들기의 경험이 쌓이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본다. 이때 서두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의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⑤ 수익 기금화

만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 정착하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사업 기금에 기부하도록 한다.

〈3〉 패러다임 변화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속가능성

① 행정의 역할 변화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만으로는 나날이 다양화되는(특히 여러 계층에서 소규모로 다양화되는)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과거 영국 등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영화를 통한 기업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방안은 기업이 단기이윤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등 제3섹터의 공공서비스 참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3섹터가 공공성을 갖추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② 제3섹터의 성장 가능성

2011년 1월 세계자원봉사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개국 전체 인구 중 평균 5.5%가 시민단체 근무자(이중 2/5 자원봉사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전체 인구 중 16%가 시민단체 근무자(이중 2/5 자원봉사자)이며, 영국은 전체 인구 중 11% (이중 55% 자원봉사자), 미국은 전체 인구 중 9.2%(이중 1/3 자원봉사자)이며, 일본은 전체 인구 중 8%가 시민단체 근무자(이중 15% 자원봉사자)였다. 반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2%가 시민단체 근무자(이중 2/5 자원봉사자)로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는 제3섹터의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비영리 기관 등 제3섹터는 사회공헌과 함께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거대한 보고라고 제시한 바가 있다.(SERI, 2009)

③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확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 주민의 주체적 참여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주도

의 마을만들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계획은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내 해결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공동체 회복 운동부터, 경제적 자립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을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제3섹터를 키우면서 다양한 지역의 욕구를 찾아 마을사업(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과 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지역자원조사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비비정 마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구축까지 5년의 시간을 걸어왔다.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이룬 성과도 의미가 크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비비정 마을은 많은 공무원과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방문하여 학습하는 주요한 사례가 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그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0년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다.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지금, 희망제작소는 마을과 지역에 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주민을 교육하고, 작은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주민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역의 역량을 키워가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치와 자립으로 단단하게 살아나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가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총서
- 남경아, 2011,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대안 커뮤니티비즈니스〉
- 홍선, 2011, 〈NGO 중간지원센터의 전국현황 및 추진방향과 과제〉
- 홍선, 2011, 〈시니어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
- 홍선,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 홍선, 2012,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자료집〉 2회, 3회
- 희망제작소, 2011, 〈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운영방안〉
- 삼성경제연구원 리포트, 2009
- 2011 세계자원봉사대회 결과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 블로그, blog.makehope.org/cb
-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www.wanjucb.org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click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